

당일 시험장에서의 전략

시험장에 입장하는 순간 수험생들의 맥박은 진동하기 시작한다. 꼭 100m 스타트 라인에 선 기분이 된다. 시간 전쟁의 시작이다. 수능 시험은 시간 싸움이다. 수능 시험이 학교 내신 시험과 다른 점은 낯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학교 내신 시험은 이미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수능 시험처럼 시간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수능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 시험 전략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험 당일은 어떤 돌발 변수가 작용할지 모른다. 평소 자신만의 루틴이 확립된 학생들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단 시험장에 입실하면 호흡을 고르며 최대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잘 해야지, 잘 해야 돼’라는 심리적 압박에 스스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① 첫째, 시험 시작 전 예령이 울리면 수험생 각각의 책상에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때 호흡을 고르면서 순간적으로 시간 배분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평소에 자신만의 전략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본격 시험 시작 전 배부된 문제지 점검 시간이 짧게 주어지는데 1교시 국어의 경우 지문을 재빨리 보면서 잘 읽히는 지문이 있는지 살펴본다. 수험생들은 새벽부터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뇌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잘 읽히는 지문을 선택해 문제를 풀면서 뇌를 예열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둘째, 문제를 풀다 보면 흔히 잘 읽히지 않는 지문이나 답이 쉽게 보이지 않는 킬러 문제를 만나게 된다. 조심할 것은 이러한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야 한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특성을 보인다. 일단 잘 풀리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남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영어, 수학, 탐구 과목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수능 시험 첫 단추인 1교시 국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풀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교시 시험 만족도가 나머지 과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교시 국어 시험을 무난하게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나면 미련 없이 2교시 시험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1교시 문제를 머릿속에서 복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2교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 3교시, 4교시, 5교시 시험 과목에 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③ 셋째, 마지막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시험 집중도를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나머지 과목도 1교시 국어 시험과 동일한 강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일관된 시험 집중도가 50점을 좌우한다. 이때 시험 집중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멘탈이다. 강한 멘탈은 높은 점수 획득에 절대적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수험생 배려를 위한 전략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수험생 못지않게 노심초사다. 남은 한 달간 수험생인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① 첫째, 우리 아이 건강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건강은 곧 시험 컨디션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막바지 떨어진 체력을 올려 줄 생각으로 평상시 먹지 않던 보약이나 보양식을 지양하고 아이가 평소 좋아하거나 잘 먹었던 음식을 해 주는 것이 좋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② 둘째, 수능 리듬에 맞춘 우리 아이 시간 관리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시험 전 한 달은 특히 아이가 수능 시간에 맞추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가족 모두의 배려가 필요한 일이다.

③ 셋째, 우리 아이 심리적 안정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실제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아이의 긴장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④ 넷째, 새로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수능 전 한 달 특강 프로그램 등을 억지로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 특강 프로그램 강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험생에게는 모두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되기 쉽다.

시험은 오케스트라 합주

시험 감독을 하다 보면 수험생들의 안타까운 실수를 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인 주의 부재에서 초래된 소소한 실수인 경우가 많다. 시험장에서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즉 눈물의 애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봐 주지 않는다. 시험장 입실 시 불필요한 물건을 휴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규정에 정해진 수험생 휴대 품목을 제외한 어떤 물건도 시험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까?’ 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아차 하는 순간 공교롭게 찾아오는 불청객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자신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컨디션 유지와 시험과 맞서기 위한 강한 멘탈, 그리고 효율적인 마무리 공부 전략, 실제 시험장에서의 시험 대처 전략을 장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응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수능 한 달 남겨둔 수험생들에게 이 소박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수험들의 성공적인 수능을 기원한다. 파이팅!

